

# 만리장성의 나라, 중국을 가다

①

한 인 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조사연구부장

1995년 3월 13일, 우리는 9시 40분발 상해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는 예정보다 20분 늦게 김포공항의 넓은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다. 일행은 임한중 건협 회장, 서울의대 기생충학과 채종일 교수, 필자 이렇게 셋이었다. 임회장은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몇번 있었으나 채교수와 필자는 초행인 탓인지 중국에 대한 온갖 궁금증으로 인해, 비행기가 황해 서남향으로 날아 제주를 막 벗어날 무렵에는 가벼운 흥분마저 느껴졌다.

중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와는 어떻게 다를까 등등에 대한 생각과 함께, 옛날 친진 공항을 통하여 북경과 연변을 다녀온 경험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공항은 말

할 수 없이 지지분하며 특히 화장실은 극히 불결하여 견디기 힘들었다는데 상해·북경과 서울을 잇는 항로가 정식으로 개설된지 몇개월되지 않은 지금의 상해 공항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필자는 잠시 머리가 복잡했었다.

기내에 설치된 모니터에 나타난 항로는 계속 남서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아침 신문을 보자, 마침 중국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 왔다. 등소평이 중국 지도층에게 남긴 이야기로, “소수 민족을 조심하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것은 한국판 광고들이 연변을 드나들며 그곳의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과 못사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자극하는가 하면, 이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너도나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빚을 내고 여

행 알선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 중국 사회 체제를 혼란시키는 것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경계성 발언이었다.

얼마 후 비행기는 마침내 목적지인 상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의 통관절차는, 세관을 통관하기까지 짐검사도 없이 의외로 간단하고 신속했다. 한편 공항의 개인 짐수레에 우리 나라 럭키금성 광고 문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뭔가 친근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 중국에서의 일정은, 상해에서 3일간 체류한 다음 15일에 북경으로 옮겨 4일간 체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첫 도착지인 상해 공항에는 상해 기생충 연구소의 췁 쟁 소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약삭빠른 일본 사람과 같은 첫 인상을 주는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과전된 유엔 하이씨와 외대 동기이며 미국에서 몇년간 유학까지 한 중국의 엘리트 계층 의사 중의 한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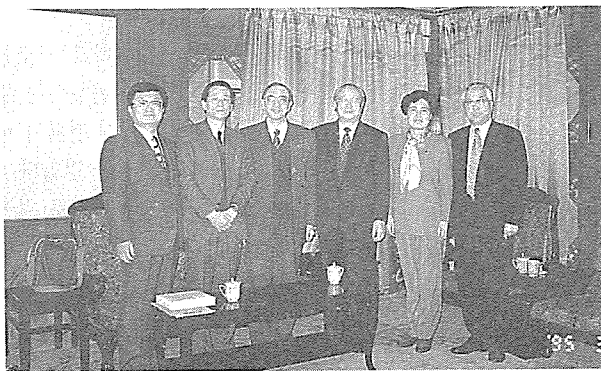
일행은 우리 나라 봉고차처럼 생김 승합차 편으로 기생충병 연구소 근처에 있는

Rui Jin Hotel로 안내되었다. 이 호텔은 2차 대전 전에 불란서 사람들이 지은 것으로 2층의 객실은 여러 동으로 갈리어 있었으며 방은 비교적 깨끗하고 넓은 편이었고, 프런트의 아가씨도 아주 친절하고 품성이 착한 편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일행은 간단한 점심 식사를 위해 호텔 식당에 마주 앉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처음으로 느꼈다. 온갖 손발짓과 영어로 음식을 주문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친신만고 끝에 만두와 새우튀김국수를 주문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일행은, 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기생충연구소를 향해 걸었다. 옛날에는 불란서 파스퇴르 연구소로 썼던 건물이라고 한다. 우리는 2층 연구소장실로 안내되었다. 우리 나라 기관장실과는 달리 세트가 ‘ㄱ’자로 벽에 붙어있고 맞은 편 벽 중앙에 TV 모니터가 걸려 있었다.

그곳에서 영어판 VTR을 통해 연구소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췁 쟁(Feng Zheng)



중국 예방의학과학원을 방문, 기념촬영을 가졌다.

씨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예방의과학원(우리 나라 보건연구원 같은 기관)이 북경에 있고 각 성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질병 연구소가 있는데, 중국의 기생충병에 대한 조사연구와 관리에 관한 한 이 연구소가 총본부격이라고 한다.

중국의 기생충병은 주혈흡충병 관리가 중요한 목표로 되었고, 칼아잘·말라리아 등과 간흡충병이나 장내 기생충 등의 기생충질환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일반 기생충관리와 특수 기생충 관리 부서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우리 나라 신풍제약에서 만든 프라지 콰텔 제제(상품명은 디스토씨이드)가 대단히 좋은 구충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풍제약과 중국이 공동 출자하여 천전에 구충제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알게 되었다.

브리핑을 마친 후 우리는 각 층의 연구실을 두루 견학했는데, 실험 기구나 연구진의 모습이 우리 나라 70년대 수준으로 느껴졌고 분위기로 보아서는 그리 활발한 연구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는듯 했다. 전산실에 PC와 프린터까지 갖추어져 있었으나 그 많은 한문을 어떻게 불러내는지를 몰라서 영어로 중국 발음을 불러내어 해당 한자를 끌어내어 문장을 이어간다고 한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영어나 한글 키보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새삼 느껴졌다.

저녁은 연구소팀의 대접으로 우리가 묵은 호텔 식당에서 있었는데 음식값은 비교

적 합리적 수준이었으며 음식의 질도 만족할만한 것이었다.

그곳 날씨를 서울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다소 따뜻하게 느껴졌다. 위도상 남쪽에 위치한 때문인지 가로수나 들녘의 푸른 새싹들이 서울보다는 좀더 푸르르게 보였다. 거리에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뒤죽박죽되어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 같으면 크랙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법한데, 그저 묵묵히 떼지어 가고 있어 충돌사고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자동차들도 비교적 많았고, 생전 처음 보는 트럭이며 승합차 등은 낯설게 느껴졌다. 또 국방색의 경찰복장이 군인인지 경찰인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분할 길이 없었다.

길을 가는 시민들의 얼굴은 비교적 활기가 있어 보였고, 자유시장경제로 바뀐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 나라 중소도시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인상이었다. 중심가에는 무궤도 버스가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다. 떼지어 지나가는 자전거 무리는 어디서고 눈에 띄었고 그 때문에 길이 좁게 느껴지기도 했다.

여기저기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있었고 중심을 관통하는 도시 고속화 도로가 있었으며 도시 전체가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음 날 우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걸어서 연구소까지 갔다. 우리는 소장실에서 향후 한·중 기생충관리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과 '95년도 한·중 관계자 교류 일정,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사진 좌측부터  
채종일 교수,  
임한중 회장,  
필자)

기생충병에 대한 연구 논문 10여편을 제공 받았다. 우리는 또 연구소 내의 도서관을 견학했는데, 50여평이나 되는 방에 많은 장서가 가득 차 있었고 관리도 꽤 잘해 놓았다. 한편 현관 계시관에는 이 연구소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생충 학자도 몇사람 눈에 띄었다.

상해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일행은 3월 15일 아침 북경행 비행기에 올랐다. 행정 소장도 북경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와 동승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747대형 비행기였는데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원이었다. 승객의 8할 이상이 중국인이었으며 일본인으로 보이는 여행객과 몇몇 서양사람이 눈에 띄었다.

북경 공항에 도착하니 작으나마한 여자가 우리 곁으로 조심스레 접근하여 일행을 맞아 주었다. 편도 3차선의 고속화 도로를 달려 북경 시내 전문(前門)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북경의 도로는 상해에 비해 끈고 넓었으

며, 시가지가 바둑판처럼 이루어진 것이 인상적이었다. 현대의 문화와 많은 역사적 유물, 즉 신구(新舊)가 공존하는 도시답게 호텔에는 코 큰 서양 단체 관광객이 몰려 있었으며 객실의 침구가 깨끗하지 못한 것 외에는 호텔도 비교적 잘 관리된 상태였다. 우리는 같은 10층에 투숙할 수 있도록 예약 되어 있었다.

호텔에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 객실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국의 수질은 좋지 않은 편이었다. 객실에 준비된 조그만 비누 한개를 수건에 짓이겨도, 도대체 거품이 일지 않았고 물에 한두번 행구면 그나마 비눗기마저 없어져서 세수와 샤워를 해도 개운치가 않았다. 옛부터 생수를 마실 수 없는 자연 조건을 가진 중국인들은, 그래서 한 여름에도 물을 끓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녹차 문화가 우리보다 생활화되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㉔